

# 미친 소와 투우쇼를 벌이는 유럽

김영우/SBS라디오 방송국 PD

**수**렵, 채취를 통해서 경제생활을 시작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 안정적이고 풍족하게 먹거리를 얻느냐였다. 이런 인간들의 바램은 곧이어 농경생활을 이루게 했고 야생의 동물들을 거둬 길들여 농경생활에서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을 공급받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 순간부터 인간은 동물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정복의 대상으로 봤고 인간에겐 차마 못할 짓을 동물에게는 거리낌없이 하게 되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 속을 마음껏 뛰놀던 동물들을 좁은 우리 속에 가둬 기르고 동물들이 좋아 하는 것이 아닌 인간들의 편리를 위해 만든 사료를 먹였다.



물론 인간들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슨 배부른 소리를 하느냐고 야단 칠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원숭이의 꿀을 맛있게 먹기 위해 원숭이를 목만 나오게 파묻어 놓고 원숭이를 화나게 한 후 죽인다는 지 개는 패대기를 쳐야 맛이 더 좋다느니 하면서 인간은 동물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인다.

자연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것 또한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동물보호단체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근 유럽을 발각 뒤집어 놓고 있는 광우병 파동은 일련의 동물 학대에 대한 자연의 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떻게 보면 유럽의 농업의 기반을 아예 송두리째 끝장낼 수 있는 사안이 이번 광우병 파동일 것이다. 유럽의 농업은 목축업과 밀농사가

주종인데 그 중에서도 낙농업은 대부분의 서구유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독일에서 먼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각료들이 생겼지만 이를 시작으로 유럽에서는 광우병과 관련해 공직을 물러날 사람들이 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독일의 안드레아 피셔 보건장관은 소시지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알고도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칼 하인츠 폰케 농업장관은 광우병의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동물성 사료의 유통을 방치한 이유로 사임을 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까지 원인으로 제기되었던 동물성 사료가 아닌 다른 이유로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몇몇 국가에서 광우병 파동이 생기고 동물성 사료에 대한 대비를 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의 존재를 대신할 만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직도 인간은 다른 동물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생각한다. 이런 오만함이 이번 광우병 파동에서 다시 한 번 깨지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인간이 신처럼 모든 것을 알고 대비할 수는 없으니까.

동물은 자기 먹을 만큼만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리고 그들은 먹이사슬에 순종을 한다. 하지만 인간은 즐기기 위해 동물을 죽이기도 한다. 인간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존재라면 더욱 겸손해지고 남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